

< 제 20 장 >

<예수님의 부활>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하면서 각기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는 모순이 아니라 각 복음서 기자의 관점과 기록 목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공관복음서는 전해 들은 사건의 흐름을 중심으로 기록된 반면, 요한복음은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의 의미를 강조한다. 또한 각기 다른 상황과 필요에 따라 어떤 부분은 간단하게, 어떤 부분은 더 자세하게 기록하였다. 따라서 동일한 사건이라도 서술 방식에 차이가 나타난다.

요한복음은 특히 예수님의 신성과 구속의 의미를 강조하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사건의 시간적 순서보다는 신학적 의미에 초점을 두고 기록된 경우가 많다.

요 20:1-8 빈 무덤

1절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안식 후 첫날”은 예수님의 부활의 날로, 구약의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을 의미한다.

이후 초대교회가 예배드리게 되는 “주의 날”(κυριακή ἡμέρα)의 기초가 된다.

“아직 어두울 때에”는 단순한 시간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 이후 제자들과 따르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 주며, 예수님의 죽음 이후 그들은 슬픔과 절망 속에 있었고 아직 부활의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막달라 마리아는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도 그것을 부활로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한 사건으로 받아들인다. 이는 인간이 눈에 보이는 현상을 통해 사건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 현상 속에 숨겨진 본질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2절 ~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마리아는 시신이 옮겨졌다고 생각하였으며, 제자들 역시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을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그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이는 인간의 이해가 하나님의 계획을 즉시 깨닫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장면이다.

3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두 제자는 즉시 무덤으로 향하지만, 이는 부활의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단지 사건의 진실을 확인하려는 인간적인 반응이었다.

이 장면은 부활 이전 제자들의 상태가 여전히 이해와 믿음 사이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 준다.

4절 둘이 같이 달음질하더니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예수님의 죽음 이후 제자들은 혼란과 두려움 속에 있었고, 무덤이 열려 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더욱 큰 충격이 되었을 것이다.

5-6절 세마포와 수건

요한은 무덤 안을 들여다보며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고, 수건이 따로 정리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하였다. 이는 시신 도난이 아니라 질서 가운데 일어난 사건임을 보여 준다.

따라서 이 장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건이며, 동시에 그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었음을 나타낸다.

7절 또 머리를 씻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 있더라.

수건이 따로 정리되어 있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스스로 일어나셨음을 보여 주는 장면이다. 따라서 부활은 시신이 옮겨진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새로운 생명의 상태로 일어나신 사건이다.

8-9절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요한이 믿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무덤 안의 상황을 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안에 없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믿더라”(ἐπίστευσεν, 에피스튜센)는 부활의 의미를 완전히 깨달은 믿음이 아니라, 눈앞의 상황을 보고 사실을 받아들인 믿음을 나타낸다.

즉, 제자들은 ‘빈 무덤’이라는 현상은 인정하였지만, 그 사건이 의미하는 부활의 본질은 아직 깨닫지 못하였다. 이처럼 인간은 보이는 현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현상 너머의 본질을 통해 역사를 이루신다.

이 장면은 인간의 믿음이 얼마나 제한적인가를 보여 주는 동시에, 하나님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이해와 인식보다 앞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부활의 의미는 이후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 제자들이 깨닫게 된다.

<빈 무덤 사건의 의미>

요한복음 20장의 첫 장면인 “빈 무덤 사건”은 단순히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첫 번째 표적이며 인간의 이해와 하나님의 계획 사이의 차이를 드러내는 사건이다.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고도 그것을 부활로 깨닫지 못하였는데, 이는 인간이 눈에 보이는 현상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해와 관계없이 자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

따라서 빈 무덤은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새로운 생명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보여 주는 사건이다. 이로써 예수님이 참된 생명의 주이심이 드러나게 된다.

요 20:17 ~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은 마지막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승천하셔야 했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막달라 마리아의 인간적인 연민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붙들지 말라”(μή μου ἄπτου)는 단순한 접촉의 금지가 아니라, 더 이상 예수님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붙잡아 두려 하지 말라는 의미를 포함한다.

이는 예수님께서 승천을 통해 성령의 시대를 여셔야 하기 때문이다.

부활은 사역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사역의 시작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사건일 뿐 아니라, 승천과 성령 강림을 통해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는 전환점이 된다.

그러므로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은 진실한 것이었지만,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역을 붙잡아 두는 인간적인 감정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장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육체적인 관계에서 성령을 통한 영적인 관계로 전환되는 것을 보여 준다.

19절 안식 후 첫날의 저녁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었던 것은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며, 이는 그들이 아직 부활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상태였음을 보여 준다.

이때 예수님께서 닫힌 문 가운데 나타나신 것은 부활하신 몸이 더 이상 육체의 한계에 제한되지 않는 새로운 존재 상태임을 드러낸다.

“평강이 있을지어다”(εἰρήνη ὑμῖν)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의 평강을 선포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제 제자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평강 가운데 살아가야 함을 나타낸다.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것은 부활하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부활은 전혀 다른 존재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동일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다. 제자들의 기쁨은 단순한 만남의 기쁨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며 예수님의 말씀이 참됨이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이 기쁨은 부활의 신앙에서 나오는 기쁨이며, 이후 교회 공동체의 기쁨의 근원이 된다.

21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

“보내노라”(πέμπω)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사명을 위임하는 파송을 의미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제자들의 사역도 동일한 구원의 사명을 이어 가는 것임을 말한다.

이는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 계속 이어짐을 나타낸다.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ἐνεφύσησεν, 에네퓌세센)는 창2:7의 생기 사건을 연상시키며, 새로운 영적 생명과 사명의 시작을 나타낸다.

하나님께서 흠으로 사람을 지으신 후 생기를 불어넣으시므로 생령이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는 것은 새로운 영적 생명과 사명의 시작을 상징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성령 강림의 완전한 성취라기보다, 이후 오순절에 나타날 성령 사역의 시작을 보여 주는 장면이며, 이후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어진 영적 권세에 대한 것이다.

“죄를 사한다”는 것은 인간이 죄를 사하는 권한을 가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복음 선포를 통해 사람들이 죄 사함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권세를 의미한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거부하는 자는 그 죄가 그대로 남게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권세는 인간의 권위가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주어진 영적 권세이며, 복음 선포를 통하여 나타나는 구원의 권세라고 할 수 있다.

<제자들이 모인 곳에 홀연히 나타나신 예수님의 형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이전과 같은 모습이지만, 단순히 부활 이전의 인성을 지닌 상태가 아니라 신성을 지니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타나신 것이다.

즉, 성육신의 육체와는 다른 부활의 몸이다.

부활의 몸은 단순히 죽은 육체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영화로운 몸’으로, 물질적인 형태를 가지면서도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새로운 존재이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영이시며 전지전능하시고 무소 부재하신 분이시기에 나타나실 수 있다.

24절 열두 제자 중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고, 다른 제자들의 증언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였다. 이는 그의 신중하고 현실적인 성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단순한 불신이라기보다 확실한 확인을 요구하는 태도였다.

25절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

이는 인간이 감각적 경험과 보이는 증거에 의존하여 믿음을 형성하려는 한계를 보여준다.

그가 요구한 것은 십자가의 흔적인 “못 자국”과 “옆구리의 상처”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동일한 분이심을 확인하려는 것이었다.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드레를 지나서”라는 표현은 다시 안식 후 첫날, 곧 일요일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제자들은 다시 모여 있었고 이번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다.

여기에서도 “문들이 닫혔는데”라는 표현이 반복된다. 이것은 제자들이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음을 보여 주지만,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새로운 존재 상태임을 나타낸다.

예수님께서 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다.

이 평강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평강이며, 두려움과 의심 속에 있던 제자들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선언이다.

27절 ~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도마가 요구한 그대로 자신을 확인하도록 하시며, 그의 의심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이끄신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연약함과 의심을 정죄하기보다 나약함을 아시고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보여 준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은 단순히 의심을 멈추라는 의미가 아니라, 보이는 증거에 의존하는 믿음에서 벗어나 하나님 이루시는 구원의 사실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이다.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나이다.

도마의 고백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고백이다.

그는 예수님을 단순한 스승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나의 주님”(κύριος, 쿨리오스)이요 “나의 하나님”(θεός, 데오스)으로 고백한다.

이 고백은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에서 시작된 말씀이 부활 사건을 통해 완전히 드러났음을 보여주며,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이시며 구원의 주이심을 확증하는 고백이다.

29절 예수께서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서는 도마의 믿음을 받아들이시면서도 더 큰 믿음의 원리를 제시하신다.

도마는 보고 믿었지만, 앞으로의 믿음은 보이는 증거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이후 시대의 모든 신자를 가리키며,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축복의 선언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사도들의 증언과 성경의 말씀을 통해 믿게 되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도마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축복의 선언이다.

30-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예수님께서서는 공생애 동안 많은 사역과 기적을 행하셨지만, 요한은 그 가운데서 의미 있는 사건들을 선택하여 기록하였다.

여기서 “표적”(σημεῖον)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계시적 사건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표징이다.

따라서 요한복음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려는 구원의 책이며, 그 믿음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서라고 할 수 있다.

<Epilogue>

주님의 말씀은 부활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부활 이전의 말씀은 구원자로서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며, 부활 이후의 말씀은 하나님으로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실행하도록 명하신 말씀이다.

예수님께서서는 공생애 동안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시며 제자들의 사역을 준비시켰고, 부활 이후에는 그 준비된 사역을 실제로 실행하도록 하셨다.

사도들의 사역 또한 오순절 성령강림을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성령강림 이전에는 준비의 단계에 있었지만, 이후에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 이후와 성령강림 이후의 공통점은, 준비되었던 사역이 실제로 실행되는 단계로 들어갔다는 데 있다.

따라서 부활은 단순한 승리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전환점이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 흐름 속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은 아는 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 사명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

결국 부활 신앙은 단순한 믿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부활 이후 예수님의 말씀>

<마 28:19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막 16:15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행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일 예배의 성경적 근거>

요 20:19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이다.

이때 제자들과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었고, 그곳에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다.

여기서 “안식 후 첫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 이후 초대교회가 모여 예배드리는 주일의 기초가 되는 날이다.

같은 장면이 눅24장에도 기록되어 있으며, 예수님께서 부활을 증거하시고(36-43), 말씀을 전하시며(44-49), 성도들을 축복하셨다(50-51). 이에 성도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며 큰 기쁨으로 돌아갔다(52).

이 장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임재하시어 말씀하시고 축복하시는 예배의 모습을 보여 준다.

따라서 안식 후 첫날, 곧 주일에 성도들이 모여 예수님을 만나 예배드리는 것은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이루신 모임에서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구약의 안식일이 창조 사역의 완성을 기념하는 날이라면, 신약의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서 구속 사역의 완성을 기억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다.

계1:10절에서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서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예수님을 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행20:7절에서도 “안식 후 첫날”에 성도들이 모여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떡을 떼며 교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주의 날”은 주님께 속한 날, 곧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날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날에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며 말씀을 나누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주의 날”, 곧 주일은 성도들이 모여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날이며, 주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어 자신을 나타내시고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날이다.

그러므로 주일은 단순한 종교적 의무의 날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새롭게 하며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다시 확인하는 거룩한 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경적 근거를 따라 <주일>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참조. 요4장 예배의 개념)

<‘안식일’과 ‘주의 날’> 의미

안식일은 모세오경의 율법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속에서 시작된 제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중요한 신앙적 의미를 지닌다.

안식일은 단순한 하루 휴식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표징이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나타내는 신앙적 제도이다.

‘안식’(안식, 샤바트 : 그치다, 중지하다, 쉬다)이라는 개념은 창2:2에서 처음 나타난다.

<창2:2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창조 사역의 완성을 선언하시고 그 질서를 유지하고 다스리는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셨음을 의미한다.

<출20:10-11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와 안식일인즉 ~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십계명에서도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기억하게 하는 날로 제정되었으며, 이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기억하도록 하였다.

또한 출31:13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출31:13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니...>

여기서 안식일은 인간이 임의로 정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구별하신 날로, 이를 통해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가 유지되고 확인된다.

구약에서 안식일의 본질은 ‘날’(day) 자체가 아니라 ‘쉼’(rest)에 있다.

따라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속한 삶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안식’과 ‘사람의 안식’은 구별되어야 한다>

<창 2:1-2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창2:2 ‘안식’은 단순한 ‘쉼’이라기보다 창조 사역의 완성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일을 멈추셨다는 뜻이 아니라 창조 질서를 세우시고 그 질서를 유지하며 다스리는 단계로 들어가셨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는 것은 창조 사역과 함께, 피조 세계를 운행하고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창2:8에서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을 세우신 것은, 이러한 창조 질서를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완성된 창조 세계를 통치하고 운행하시는 창조 사역의 연속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출31:13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레19:30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명하신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안식’이 창조 사역의 연속성을 의미한다면, ‘사람의 안식’은 하나님의 뜻과 창조 목적에 참여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삶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백성들을 통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 사람을 두어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신 것은,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이 창조 사역의 연속성을 의미하는 것처럼, 사람의 안식 역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연속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안식일의 의미는 신5:15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5:15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거기서 너를 인도 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 말씀은 안식일이 창조를 기념하는 날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신 구원을 기억하는 날임을 보여 준다.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분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적 행위이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배하는 데 있다.

안식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며 창조 목적을 다시 생각하는 날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주의 날>(κυριακή ἡμέρα, 쿨리아케 헤메라)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예배하는 날이라 할 수 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키던 안식일의 의미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기념하는 날로 나타난 것이 곧 ‘주일’이다.

<막2:27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 말씀은 안식일이 인간을 억압하는 규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의 제도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의 목적을 깨닫게 하여 결국 구원으로 인도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주일>은 인간이 필요에 의해 만든 제도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신앙의 날’이라고 할 수 있다.

“안식일”과 “주일”을 지켜야 하는 의미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다만 율법 아래에서 지켜지던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완성되었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나타난 것이 <주일>이다.

<요4: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거듭난 자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의미한다.

이날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의 날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구속의 은혜를 기념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사명을 새롭게 하는 날이다.

따라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드려져야 하며, 그분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곧 <주일>에 드려지는 것이다.